

여성의 취업유무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및 영향요인 비교

김 미 령*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취업유무에 따른 여성의 가사일 부담, 남편과의 관계, 남편의 여성의 직장생활에 대한 이해도 및 실질적인 도움, 일이 가정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 여성들의 성역할인식, 가사와 직장의 병행의 어려움 등이 현재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소들을 파악하여 여성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가정생활 및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정책적,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 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 1차와 2차가 사용되었다.

1차와 2차에 취업상태에 있는 여성, 1차에 취업상태에 있다 2차에 비취업인 여성, 1차와 2차에 계속 비취업인 여성, 1차에 비취업이나 2차에 취업한 여성의 네 집단을 대상으로 결혼만족도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여성의 가사분담만족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태도와 실질적인 만족의 차이가 없을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남편이 가사일을 평일에 하는 시간의 많고 적음에 따른 결혼만족도에는 차이가 없는데 주말에 남편이 가사일을 많이 분담할 경우 여성의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직장관련변인에 따른 결혼만족도를 보면 일-가족 전이가 높을 경우 결혼만족도가 낮고 일-가족전이가 낮을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았으며, 일만족도가 높을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직장유무에 관계없이 가사분담이나 성적 만족에 대한 태도와 실제의 차이가 적을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남편의 지지는 주말에 가사일을 많이 해줄 경우 여성의 취업유무에 상관없이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현재의 취업유무에 관계없이 부부관계는 결혼만족도를 높였고 가사분담으로 인한 갈등은 결혼만족도를 낮추었다. 비취업상태인 여성의 경우 취업상태에 있는 여성과는 달리 남편의 지지는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제어 : 직장유무, 성역할 인식, 가사분담, 결혼만족도

* 대구대학교 지역사회개발 복지학과 교수(mkim@daegu.ac.kr)

** 이 논문은 2011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이 논문은 여성정책연구원의 제2차 여성가족패널조사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I. 서론

높은 교육수준과 산업화로 인한 여성들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으로 많은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여성들의 유휴인력을 활용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인한 가정생활의 어려움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문제로 이어져 남편의 여성의 직장생활에 대한 배려와 가정에서 가사일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겠다. 또한 여성의 성역할 태도와 실질적인 가정생활에서의 지위와 역할도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여성이 가정생활에서 배우자와의 관계에 만족감을 느낄 때 자녀를 출산하고 싶은 의욕도 생길 것이며 가정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며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 자녀출산에 대한 동기가 부여될 것이고 현대 한국사회의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남녀고용평등법이 1987년 제정된 이후 많은 여성들이 직장인으로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 들어와 가족의 형태와 기능은 많이 변화되어 전통적인 남성중심에서 부부중심의 핵가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가정 내에서의 남성의 의식구조는 아직도 남성중심의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기능면에서도 전통적인 가정주부로서의 역할도 대부분 여성만의 역할로 남아 여성은 오히려 직장과 가사일, 자녀양육의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족의 변화로 인한 가사노동 부담의 문제는 부부 간의 갈등 문제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조흥식 외, 2006). 여성은 가정에서 경제력의 기여 외에도 가사노동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어 역할 과부담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직장 여성은 가정과 일의 양립으로 인한 다 역할(multiple roles)로 어려움을 겪을 때 가사일로 인한 남편과의 갈등은 여성의 결혼만족도도 위협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인해 여성의 복지 및 사회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위협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의 사회참여의 증대로 가정에서의 가족구성원의 역할은 협조적인 관계로 남편과 아내가 모두 직장을 갖고 자녀와 집안일에 함께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전환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며 많은 여성들이 직장을 갖고 있으면서 대부분 자녀양육의 책임을 담당하는 두 가지 역할로 인해 역할긴장을 겪는다(Ross and Mirowsky, 1988). 이와 같이 다양한 역할로 인한 역할과중으로 역할이 통합되지 못할 때 역할긴장이 생기게 되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Pearlin et al., 1981).

글로벌화의 경제는 경쟁을 더욱 심화시켜 남편의 임금만으로는 부족한 가계소득을 보충하기위해 여성의 노동과 사회참여를 증대시켰다. 현대 사회의 변화로 인한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는 가족에게 많은 변화를 주고 있다. 이로 인해 가정에서는 자녀의 출산과 양육의 문제, 가사역할의 분담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어 양성평등적인 가족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여성이 가정에서 만족감을 느낄 때, 가사와 자녀양육과 직장의 모든 역할로부터 과부담을 느끼지 않을 때, 결혼에 만족할 때 출산율은 증가할 것으로 결혼만족도는 저출산의 해소와도 연계되리라 사료된다. 여성이 가정에서 편안하고 행복할 때 자녀출산의 동기도 자연스럽게 증가한다고 한다(정창우, 2007). 가정생활에 만족을 느껴야 즉 결혼에 대한 만족감을 통하여 가족의 기능인 자녀출산과 양육의 기능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여성의 직장유무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대에 따라 직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차이가 있었다(김미령, 2009). 본 연구에서는 현재 취업하고 있는 여성과 비취업상태인 여성들을 중심으로 결혼만족도의 영향요인들을 파악하고 비교하는 것으로 여성가족패널 1차와 2차에 계속 취업상태에 있는 여성, 1차에 비취업 2차에 취업상태인 여성, 1차에 취업 2차에 비취업상태인 여성, 1차와 2차에 계속 비취업상태인 여성의 네 집단을 대상으로 종단적 자료를 활용하여 결혼만족도를 비교하였다. 또한 취업유무에 따른 가정적인 요소의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취업유무에 따라 독립변인의 높고 낮음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와, 본인의 성역할태도, 남편과의 관계 및 직장관련 변인의 변량이 결혼만족도를 얼마나 설명

하는지를 파악하였다. 그러므로 현재의 여성들의 직장상태유무 뿐 아니라 과거의 직장상태와 현재의 직장유무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 및 영향요인 파악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의 결혼만족도가 더 높다(김민희와 민경환, 2007; Vannoy-Hiller and Philliber, 1992). 여성들은 결혼을 통하여 손해를 본다고 느낀다. 부부체계는 가족의 하위체계이기는 하지만 부모체계나 형제체계의 다른 가족의 하위체계를 구성하는 근간으로 부부체계의 원활한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아 결혼생활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가족 전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부체계에 갈등이 생길 경우 가족구성원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조홍식 외, 2006) 여성의 결혼만족도는 가족구성원의 복지를 위해서도 중요하다(Olson et al., 1989). 가족복지는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얼마나 충족하며 필요에 만족하는가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Longress, 1990). 그러므로 여성이 결혼을 통해 그들의 필요에 얼마나 만족하는가가 결혼만족도가 될 것이며 여성의 결혼만족도는 가족구성원의 복지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직적인 영향으로 원가족의 영향, 생태체계론적인 입장에서 여성의 평등적 성역할 태도와 배우자와의 관계, 가정생활에서의 배우자의 도구적, 정서적 지지, 직장에서의 영향 등 미시체계와 중간체계의 요소를 중심으로 결혼만족도에의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변인으로 크게 여성의 성역할 태도, 가사역할 분담 만족도, 성적 만족도, 남편과의 관계, 집안일 분담에 대한 갈등, 일하는 것에 대한 남편의 배려, 일-가족 전이, 남편의 직장에 대한 이해도, 직장에서의 일만족도의 결혼만족도에의 영향을 파악하여 여성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가정생활 및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정책적,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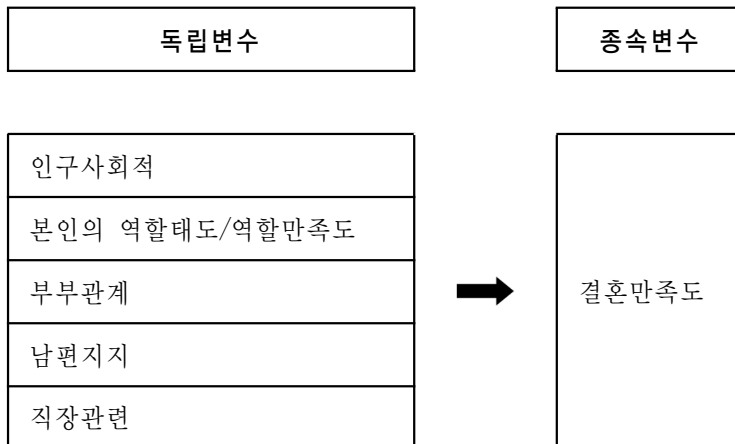
본 연구의 목적에 근거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취업유무에 따라 여성의 성역할 태도나 만족도, 부부관계, 남편의 지지 등에는 차이가 있는가?
2. 현재 취업 중인 여성의 성역할 태도나 만족도, 부부관계, 남편의 지지 등에 따라 결혼만족도에는 차이가 있는가? 또한 현재 비취업 중

인 여성의 성역할 태도나 만족도, 부부관계, 남편의 지지 등에 따라 결혼만족도에는 차이가 있는가?

3. 여성의 성역할 태도, 배우자와의 관계 및 이해, 가사분담(정도, 시간, 갈등), 일-가족 전이, 일만족도 등은 결혼만족도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4. 취업유무에 따라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는 차이가 있는가?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1] 연구모형

II. 선행연구고찰

1. 원가족과 결혼만족도

여성이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것은 여성 개인의 복지나 행복 뿐 아니라 가족구성원 모두의 복지나 행복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Bradbury et al., 2000).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크게 여성의 원가족인 가족관계의 영향 및 현재의 생태체계에서 일어나는 여

러 요소들로 볼 수 있다. 카터와 맥골드릭(Carter와 McGoldrick, 2005)이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가정은 원가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원가족의 영향 즉 자신이 태어난 가족고유의 전통과 문화, 부모세대에 해결되지 못한 여러 가지 쟁점들과 가풍들의 영향이다. 그러므로 정체성이 형성될 청소년기에 경험한 부모님의 관계도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브론펜브레너(Bronfenbrenner)의 생태체계론적(Kail and Cavanaugh, 2007) 입장에서 본 결혼만족도의 영향은 여성 개인의 인구사회적인 특성 및 가정 내에서의 성역할에 대한 태도, 미시체계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및 배우자와의 관계, 중간체계인 직장으로부터의 영향을 들 수 있다. 거시체계의 영향은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으로 인한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산업화로 인한 여성의 고용시장에서의 참여요구 증대, 고등교육을 통한 양성평등의 사회화 등으로 여성들의 사회적인 정체성과 성역할에 대한 태도변화 등에 영향을 준 중요한 요소로 핵가족의 형성 및 가족복지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와의 역할분담에 있어서는 가정 내의 고유의 규칙이 있는데 여성이 어떠한 성역할 태도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외부의 환경 즉 자신의 가정 내에서의 불평등한 역할분담을 당연히 받아들이는지, 혹은 불평등한 관계를 인지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혼만족도는 달라질 것이다. 또한 중요한 가족구성원이며 결혼 당사자인 배우자와의 관계, 특히 직장여성의 경우 가정과 직장을 갈등없이 양립하기 위한 배우자의 여성의 직장생활에 대한 이해, 가사역할분담 등의 실질적인 배려, 또 자녀양육이나 가사분담에 남편의 역할분담 등도 중요할 것이다. 직장여성은 수면을 제외한 하루의 1/3은 직장에서 1/3은 가정에서 보내기 때문에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가정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생산을 위한 휴식으로 특히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들의 경우 가정에서 남편의 이해가 부족하고 여성들의 가사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때 탈진하게 되는 등 결혼만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정이 남성들이 사회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서적 안정 및 재생산에 기여한다면 여성이 직장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정서적 안정 및 재생산을

위한 휴식 등 가족기능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여성들이 자란 원가족의 가족문화는 여성들의 사회화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여성들의 부모와의 관계는 중요한 삶의 질의 영역인 가정이나 직장만족에 영향을 미쳤으며(박경환, 2010) 원가족을 통하여 성역할에 대한 정보를 얻으며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 유형들을 배우게 된다(Anderson and Savatelli, 2003). 그러므로 청소년기에는 역할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로(Erikson, 1968) 청소년기에 부모님의 부부관계를 보고 배운 것은 성인이 된 후의 결혼생활에서 부부 간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모의 결혼생활에 대한 태도나 부부사이의 사회학습이론(Bandura, 1977)에 의해 자녀들이 보고 배우으로써 여성들이 갈등의 해결방법 등에 사용가능하므로 자신들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많은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결혼생활은 자녀들의 결혼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부모의 결혼생활의 질이 높을 때 자녀들의 결혼생활의 질이 높았으며(김병수·정혜정, 2007) 부모의 행복한 결혼생활에 대한 인지는 여성들의 결혼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원가족의 영향은 긍정적인 결혼만족도의 측면보다 좋지 않은 부모님의 부부관계가 가족관계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강혜숙과 김영희, 2008).

2. 여성의 성역할 태도, 역할 만족도와 결혼만족도

1) 성역할 태도

서구의 산업화로 인해 가정에서의 성역할은 변화하고 있으며(Longress, 1990) 현대는 산업화, 핵가족화, 여성의 취업증가 등으로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치와 양성평등주의적 가치가 혼재해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조흥식 외, 2006). 즉 여성들은 산업화와 교육을 통한 사회화로 가정이나 사회에서 양성평등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지만 가정이나 사회의 가치관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이선미와 전귀연, 2001). 평등적 성역할 태도는 남성은 집밖의 일, 여성은 가사와 육아의 모든 일이 아닌 가정 내에서의 평등한 역할 분담, 의사결정의 공유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여성의 직장인으로서의 성역할 태도는 가정에서 주부의 정체성 뿐 아니라 직장인

으로, 사회 일원으로서의 사회적 정체성도 중요한 역할로 인지하는 것일 것이다. 양성평등이란 남녀가 이질적이긴 하지만 평등한 가치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가정 내에서 돌봄노동이나 가사노동이 여성에게 모두 부담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구성원들의 공동책임으로 인식되어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다(정창우, 2007). 가정의 상호작용유형은 가정의 역동성에 영향을 미치며(Anderson and Sabatelli, 2003) 부부의 결혼만족도에도 중요한 요소로(Vannoy-Hiller and Philliber, 1989), 부부의 성역할 태도는 부부의 상호작용유형의 한 형태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가사분담에 대한 역할기대와 만족

파발코(Pavalko, 1986, Longress, 1990 재인용)에 의하면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남편과 부인의 역할은 뚜렷이 구분되며 남성이 가정 내에서 권력을 독점하는 형태며, 부부중심의 양성평등적 가정에서는 민주적으로 부부 둘 다 경제력에 기여하는 반면 결정권이나 자녀양육도 공유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직장여성들은 가정의 경제력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가사분담에 대한 역할도 대부분 여성의 몫으로 되어있어 가정에 기여하는 측면에서는 양성평등적이지만 육아나 가사일의 역할수행에서는 전통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이중부담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남편이 자녀양육에 참여하느냐, 가사일을 돌보느냐는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Ross and Mirowsky, 1988). 연구에 따라 실질적으로 가사나 육아에 참여하는 시간의 정도가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기도 하고(김미령, 2009), 어떤 유형의 가사를 담당하느냐가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조혜선, 2003).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여성들의 가사분담에 대한 역할기대나 만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직장여성들은 직장을 통한 사회적 지위, 경제력, 사회적 통합감과 가정모두를 통하여 기쁨을 누린다. 그러나 자녀양육의 책임을 주로 혼자 짊어져야 할 경우 직장을 통한 기쁨은 상쇄된다(Ross and Mirowsky, 1988). 성역할 기대는 실질적인 결혼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들의 가사 분담 특히 직장여성들은 많은 부분 남편이 가사일이나 자녀양육을 공유하기를 원한다. 가사분담을 공유하기 원하는 경우에 실질적인 도움이 없으면 만족하지 못할 경우 가정을 통한 기쁨을 얻지 못하게 되므로 결혼에 대한 만족감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현대에는 가족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인 생산기능은 직접 의식주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의 활동을 재충전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남편이 가사일을 도와주며 자녀를 돌봐줄 경우 여성들의 직장생활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Kessler and McRae, 1982). 이와 같이 가사분담은 여성들의 정신건강과 결혼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요인이다.

결혼관계에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있다. 여성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일로 생각했던 가사나 육아에 남편이 도움을 주었을 때 결혼만족도가 높고 특히 시간적으로 부족하고 신체적으로 고갈되어 있는 직장여성의 가사부담을 배우자가 덜어준다면 결혼만족도는 높아질 것이다.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신이 한 역할보다 배우자가 자신을 위해서 해준 역할이 더 결혼만족도를 높였으나(Burr et al., 1979) 전통적인 성역할을 가진 여성의 경우 자신들이 대부분의 육아와 가사일을 부담하고도 남편의 가사분담만족에 별로 불만을 느끼지 않았다(김미령, 2009). 중요한 것은 가사만족도는 실질적인 가사일 시간과 가사만족에 대한 기대와 높은 관계가 있다(Lavee and Katz, 2002). 가사분담만족으로 인한 결혼만족도는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진 여성들보다 평등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진 여성들에게 더 높게 나타났다(Greenstein, 1996). 또한 배우자에 대한 역할기대치가 높을 때 결혼만족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Vannoy-Hiller and Philliber, 1989)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가사일 분담은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김경신과 김오남, 1996), 가사분담에 대한 불공평인지는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Frisco and Williams, 2010). 이와 같이 교환이론에 의하면 부부 간에 실질적인 내용보다 상호공평한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때 만족한 결혼생활이 된다고 한다(Frisco and Williams, 2010; Kail and Cavanaugh, 2007; Voydanoff and Donnelly, 1999).

3) 성적 만족

부부체계는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하위체계로 가족 내에서 수행해야 할 직무가 있다. 특히 부부체계의 직무수행 결과는 부부 간의 결혼만족도로 나타날 수 있다. 부부체계의 직무는 신뢰하고 존경할 만한 의사소통의 확립과 친밀성, 만족할 만한 성적 관계의 확립으로(조흥식 외, 2006; Anderson and Savatelli, 2003) 부부체계가 잘 운영될 때 즉 부부관계가 성공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질 때 다른 하위체계인 부모체계, 형제체계가 정서적 안정을 누릴 수 있으며 가족의 다른 기능인 자녀양육기능 및 자녀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성생활만족은 결혼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손연정과 유문숙, 2008). 성은 부부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만족스런 성생활을 통하여 의사소통을 증진시키며 감정의 교환도 이루어지므로 부부는 성적 만족을 통하여 신체적 만족 뿐 아니라 정서적인 만족도 얻는다(오중희, 2008). 부부 간의 성생활을 통한 신체적 접촉은 부부생활에서 안정감과 신뢰감을 높이며 부부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만족감을 높인다(이희숙과 박경, 2008). 반면 성적 불만은 중요한 부부문제요인으로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조흥식 외, 2006) 특히 부부의 성에 대한 태도와 실질적인 만족감의 차이가 클 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조혜선, 2003). 이와 같이 많은 학자들은 부부생활의 결혼만족도에 성생활 만족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3. 부부관계와 결혼만족도

1) 부부관계

현대 핵가족의 가족관계에서는 외적인 요소보다 부부 간의 관계가 결혼관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최선희와 전명희, 1999). 부부관계는 여러 가지 요소로 이루어지나 특히 의사소통은 결혼만족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박태영, 1998). 의사소통 중 긍정적인 의사소통과 부정적인 의사소통이 받는 영향은 현저히 다르다고 한다. 강혜숙과 김영희(2008)의 연구에 의하면 부정적인 의사소통은 결혼

만족도를 낮추고 있다. 의사소통 등을 포함한 부부관계는 결혼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요인을 나타내고 있는데(김경신과 김오남, 1996; 조혜선, 2003) 의사소통은 결혼관계의 친밀성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Anderson and Savatelli, 2003).

2) 가사분담갈등

역동적 체계인 가족체계에서 갈등은 불가피하다(Carter and McGoldrick, 2005). 그러므로 결혼생활에서 부부 간의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가족문화에서 사회화된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룰 때 서로에게 적응하기위해 생기는 갈등은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여성들이 양성평등적 가치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직장생활을 할 경우 배우자에게 기대되는 역할이 높을 수 있는데 배우자의 역할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역할로 인한 갈등은 여성이 직장을 갖고 있을 때의 가사와 자녀양육을 위한 역할분담으로 인한 것이다. 특히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으로 인해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역할기대와 역할수행이 불일치할 때 갈등의 원인이 된다(이선미와 전귀연, 2001).

여성들은 가사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분담이 잘 되어있지 않아 직장과 집에서 일을 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남성의 경우 가정은 퇴근 후의 안식처로써 휴식을 얻는 생산적인 역할을 제공하는 곳이지만 여성의 경우 퇴근 후에도 가정은 안식처로써의 휴식을 취하는 것 보다는 남성이 휴식을 취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주로 담당한다. 그러므로 때로는 역할 과부담으로 인한 역할갈등을 겪게 되기도 하여 결혼생활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가사분담으로 인한 갈등은 부부가 많이 겪는 갈등의 영역으로(김갑숙과 최외선, 1992; 최선희와 전명희, 1999) 역할갈등이 적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다(김경신과 김오남, 1999).

4. 남편의 지지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Cohen and Wills, 1985) 부부 간의 적절한 지지는 결혼만족에 중요한 요소다

(이희숙과 박경, 2008). 특히 가정에서 가족구성원으로 부터의 지지는 중요하며 가장 가까운 배우자로부터의 지지는 여성들이 직장을 갖고 있고 가사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경우 더욱 그럴 것이다.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구성원이 상호협조하는 것, 결혼생활의 만족을 위해 부부가 서로 협조와 노력을 하는 것은 가정의 갈등을 관리하고 만족한 결혼생활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부부관계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친밀하고 열정적인 관계보다는 동반자 관계로(Kail and Cavanaugh, 2007) 서로의 협조와 노력을 통해서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가정에서 남성들의 육아나 집안일로 보내는 시간은 일주일에 114분으로 두 시간이 안 되며 여성은 921분으로 약 15시간이다(김미령, 2009). 아직도 남성들은 가사일을 대부분 여성의 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사일을 하는데 남편들은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가정 내에서의 가족구성원들의 협조 특히 남편의 협조는 여성들의 심리적 건강에 기여하는 요소로(Anderson and Savatelli, 2003) 여성이 직장생활을 할 때 부족한 시간에 대한 협조와 남편과의 정서적 유대나 직장생활에 대한 남편의 이해는 결혼만족도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여성들의 높은 교육수준과 여성의 취업확대 등으로 인한 남녀의 역할변화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의 성역할인지에 대한 변화는 일어나고 있지 않다(김정신과 김오남, 1996).

남편이 육아나 가사일을 도와주는 실질적인 것 뿐 아니라 아내가 직장생활을 하는데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다. 가정에서 남성은 직장과 가정의 양립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여성의 경우 직장과 가정의 양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면 즉 가족의 다른 구성원의 비용지불로 인해 한쪽은 이득을 얻고 다른 구성원은 지나친 비용을 지불할 경우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이 직장생활을 할 때 남편의 배려는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가족구성원은 서로 지지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특히 배우자의 지지는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여성들은 남편들의 이해나 배려를 통하여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누릴 수 있을 것이며 남편의 지지에 대한 인지는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류계숙외, 2011).

5. 직장생활

직업이란 사회에서 개인의 위치를 정할 뿐 아니라 정체성을 주며 사회 통합감을 느끼게도 하며 성취감을 제공하기도 한다(Kim and Moen, 2001). 그러므로 많은 여성들은 직업이나 결혼이나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으며 육아나 직업이나의 귀로에 서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 유무에 따른 가정에서의 결혼만족도 즉 직장생활로 인한 가정생활의 어려움들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Bradbury et al., 2000). 직장이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직장 그 자체가 아니라 직장생활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한 가정 내에서의 역할분담이 결혼생활이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직장에서의 근로시간,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는 부부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결혼만족도의 중요한 영향요소가 될 수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의 경우보다 직장 일로 인해 가정생활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Kail and Cavanaugh, 2007). 남성의 경우 직장과 가정 관계는 상호지지적이고 보완적인 관계로 가정은 남성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일로 인해 가정에 지장을 초래하여 직장가정은 서로 갈등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Carter and McGoldrick, 2005).

그러나 개인은 직장을 생계의 수단이 아닌 사회정체성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며 능력과 꿈을 실현하는 터전으로 인식한다(윤대혁, 2008). 그러므로 직장에서의 일만족도는 자신의 직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일만족은 개인의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쳤다(이경재와 김주자, 2008). 또한 일만족도는 결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손연정과 유문숙, 2008; Vannoy-Hiller and Philliber, 1992).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수집한 자료로, 2006년~2007년에 수집한 1차 여성가족패널과 2008년에 조사된 2차 여성가족패널에 모두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샘플크기는 1차와 2차에 계속해서 취업상태에 있는 여성(323명), 1차에 비취업상태이나 2차에 취업상태인 여성(549명), 1차에 취업상태에 있다가 2차에 비취업상태인 여성(465명), 1차와 2차에 계속 비취업상태인 여성(747명)이다.

2. 자료분석방법

- 1) 직장유무에 따라 여성의 성역할 태도나 만족도, 부부관계, 남편의 지지 등에는 차이가 있는가를 보기위해 ANOVA검증을 하였으며 유의할 경우 Fisher LSD를 사용하여 사후검증을 하였다.
- 2) 여성의 성역할 태도나 만족도, 부부관계, 남편의 지지 등에 따라 결혼만족도에는 차이가 있는가의 보기위해 t검증을 하였다.
- 3) 회귀분석 시 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이 있는 가를 파악하기위해 상관관계분석을 하였다. 여성의 성역할 태도, 배우자와의 관계 및 이해, 가사분담(정도, 시간, 갈등), 일-가족전이, 일만족도 등은 결혼만족도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변량의 변화를 측정하여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 4) 직장유무에 따라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는 차이가 있는가의 독립변인들 간의 종속변인에의 영향의 크기를 파악하기위해 표준화계수인 β 를 사용하였다.

3. 변인의 설정 및 측정도구

변인의 설정

종단적 자료의 특성을 살려 현재의 결혼만족도를 보기위해서 1차 패널의 인구사회적인 변인 및 결혼만족도를 통제변인으로 사용하였다. 통제변인 중 주관적 경제상태나 주관적 건강은 현재상태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어 2차 패널이 사용되었다. 현재의 직무와 관련된 가사노동분담이나 남편의 이해 등도 현재상태가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어 2차 패널이 사용되었다.

1) 종속변인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는 결혼생활에 대한 느낌을 묻는 질문으로 “①매우 불행하다”에서 “⑦매우 행복하다”로 리커트 7점 척도가 사용되었다.

2) 독립변인

독립변인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는 독립변인을 평균보다 높은 것과 낮은 것의 두 범주로 나누어 두 범주의 결혼만족도 차이를 검증하였다.

(1) 성 역할 태도

가정 내의 역할 중 여성들의 직장역할에 대한 성 역할 태도에 관한 질문으로 “①남자는 직장을 가지고 여자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②주부도 직장을 다녀야 부부관계가 평등해진다”의 두 문항이 사용되었다.” 성 역할 태도에 관한 답변은 “①매우 그렇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로 리커트 4점 척도가 사용되었다. 평등한 성역할 태도의 점수를 높게 하기 위해 역코딩하였으며 두 문항의 합이 사용되었다.

(2) 남편의 가사분담에 만족

가. 남편의 가사분담에 대한 역할 기대: 남편의 가사분담 만족은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공평히 분담해야한다”로 남편의 가사분담의 공평한 역할에 대한 기대를 측정한 것이다. 가사분담기대에 대한 답변은 “①매우 그렇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로 리커트 4점 척도가 사용되었으며 공평한 역할기대를 높게 하기 위해 역코딩하였다.

나. 남편의 가사분담에 대한 역할 만족: 실질적으로 남편이 육아와 집안일을 분담하는 것에 만족하는 정도에 대한 것으로 “①매우 만족한다, ⑤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의 리커트 5점 척도가 사용되었다.

만족하는 것의 점수를 높게 하기 위해 역코딩하였다. 가사분담에 대한 만족은 개인이 실질적으로 역할만족이 공평해야 한다고 느끼는 기대 정도와 실질적인 역할만족의 차이를 사용하였다.

(3) 성적 만족

가. 성적 만족 태도: 부부생활에서 성적 만족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정도로 ①정말 그렇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로 리커트 4점 척도가 사용되었으며 중요하게 느끼는 것의 점수를 높게 하기 위해 역코딩하였다.

나. 실질적 성적 만족: “남편과의 부부생활(성관계)에 만족한다”로 실질적으로 부부 간의 성관계에 만족하는 것의 측정으로 “①정말 그렇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로 리커트 4점 척도가 사용되었다. 중요하게 느끼는 것의 점수를 높게 하기 위해 역코딩하였다.

성적 만족은 성적 만족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과 실질적인 만족의 차이를 사용하였다.

(4) 부부관계

부부관계는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으로 평소의 대화, 견해가 비슷, 신뢰의 세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각의 문항은 “①정말 그렇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로 리커트 4점 척도가 사용되었다. 중요하게 느끼는 것의 점수를 높게 하기 위해 역코딩하였다. 부부관계척도의 내적 일관도는 크론바흐 알파 .77이다.

(5) 부부갈등

부부갈등은 “지난 한달 동안 부부 간에 집안일의 분담을 둘러싸고 말다툼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로 “①전혀 없다” “④많이 있다”로 리커트 4점 척도가 사용되었다.

(6) 남편가사일

남편가사일은 평일과 토요일 및 일요일에 남편이 하는 가사일의 시간을 분으로 측정하였다. 남편가사일은 평일과 주말에 하는 의미가 다르므로

분리하여 사용하였다.

(7) 남편이해

남편의 이해는 여성이 일하는 것에 대한 남편의 이해에 대해 여성들의 주관적인 생각을 묻는 것으로 “①매우 반대, ⑤매우 찬성”의 리커트 5점 척도가 사용되었다.

(8) 일-가족 전이

일-가족 전이는 직장생활이 가정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로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 “일하는 시간이 불규칙해서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의 두 문항이 사용되었다. 답변은 “①정말 그렇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로 리커트 4점 척도가 사용되었으며 지장을 주는 것의 점수를 높게 하기위해 역코딩하였다. 두 문항을 합한 값이 사용되었으며 일-가족 전이의 내적 일관도는 크론바흐 알파 .87이다.

(9) 일 만족도

일만족도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한 것으로 “①매우 만족 ⑤매우 불만족”의 5점 척도가 사용되었다. 만족한 것의 점수를 높게 하기위해 역코딩하였다.

3) 통제변인

통제변인으로 결혼기간, 1차의 결혼만족도, 여성의 1차의 직장유무, 학력, 남편의 2차 직장유무, 학력, 2차의 주관적 건강과 주관적 경제상태, 1차의 부모님의 부부사이가 사용되었다.

IV. 연구결과

표1은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본 것으로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 여성은 41.84%, 비취업상태인 여성은 58.15%로 거의 3/5이 직장을 갖고 있지

않았다. 결혼한 기간은 평균 17년 정도며 학력은 2.61로 중졸과 고졸의 중간정도 수준이다. 연령은 결혼기간과 상관관계가 .9이상으로 높아 회귀분석시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남편은 72.61%가 직장을 갖고 있어 여성의 취업률보다는 훨씬 높았다. 연령은 만 19세에서 64세의 분포며 평균연령은 40세다. 결혼만족도는 1차가 5.22, 2차가 4.92로 2차가 조금 낮았다. 주관적 건강은 3.71로 보통보다 높았으나 주관적 경제는 2.61로 보통보다 낮았다.

표2의 취업상태의 변화에 따른 변인들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역할태도, 남편가사일(평일), 남편 이해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역할 태도는 1차유 2차유인 집단과 1차유 2차무인 집단이 5.31로 같게 나타나 일단 직장을 한번 가졌던 여성들은 성역할태도가 현재 직장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평등적 성역할 태도를 가장 높게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1차와 2차에 계속적으로 취업상태에 있는 여성의 성역할 태도는 1차에 비취업상태로 있다가 2차에 취업상태인 여성보다도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1차2차 모두 비취업상태인 여성보다도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및 결혼만족도

변인	구분/빈도%(n)평균(S.D.)	변인	구분/빈도% 평균(S.D.)
직장	1차유->2차유 15.50(n=323)	결혼기간	평균17년(11.13)
	1차무->2차유 26.34(n=549)		
	1차유->2차무 22.31(n=465)		
	1차무->2차무 35.84(n=747)		
남편직장	유 72.61% 무 27.39%	학력	무학 8.47 고등 28.48 초등 9.91 초대졸이상 29.88 중학교 23.24 평균: 2.61(1.24)
연령	최저 19 최고 64 평균40.60(11.35)		
주관적 건강	3.71(0.83)	주관적 경제	2.62(0.81)
결혼만족도1차	5.22(1.23)	결혼만족도2차	4.92(1.18)

평일에 남편가사일은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 여성의 남편이 현재 비취업상태인 여성의 남편보다 유의미하게 많았다. 남편의 토/일의 주말 가사일은 부인의 취업유무와 관계없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평일보다는 많아 주말에 남편들은 아내의 취업유무에 관계없이 80분 정도 집안일을 하는데 소모하고 있었다. 남편이 여성의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 경우 3.81, 3.77로 거의 찬성이며 1차에 취업상태에 있다가 2차에 비취업상태인 여성은 2.79, 1,2차 모두 비취업상태인 여성은 2.83으로 여성들이 취업상태에 있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정도가 보통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었다.

〈표 2〉 취업상태의 변화에 따른 변인의 차이

직장 /변인	결혼 만족도	성역할 태도	가사분 담만족	성적 만족	부부 관계	가사분 담갈등	남편 가사일 (평일)	남편 가사일 (토/일)	남편 이해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①	4.84 (1.16)	5.31 (1.31)	-0.04 (1.30)	0.44 (0.68)	8.68 (1.64)	1.86 (0.77)	19.21 (44.20)	89.06 (164.45)	3.81 (0.76)
②	4.87 (1.13)	4.94 (1.27)	-0.01 (1.24)	0.34 (0.66)	8.76 (1.68)	1.81 (0.75)	21.47 (47.80)	80.31 (151.79)	3.77 (0.82)
③	4.94 (1.20)	5.31 (1.26)	-0.04 (1.24)	0.41 (0.76)	8.84 (1.80)	1.76 (0.78)	11.07 (29.42)	75.36 (122.00)	2.79 (1.01)
④	4.96 (1.20)	5.01 (1.26)	0.02 (1.31)	0.76 (0.75)	8.85 (1.70)	1.78 (0.77)	14.30 (38.68)	81.97 (160.70)	2.83 (1.01)
χ^2/F	0.79	10.86 **	0.21	1.04	0.63	0.84	5.20 **	0.39	132.80 ***
pair- wise		①-② ①-④ ②-③ ③-④					①-③ ②-③ ②-④		①-③ ①-④ ②-③ ②-④

* $p<.05$; ** $p<.01$; *** $p<.001$; pair wise t -test는 $p<.05$ 에서 유의미 한 것임

직장:①1차2차유 ②1차무2차유 ③1차유2차무 ④1차2차무

표3은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 여성들의 성역할태도, 부부관계, 가사분담만족과 갈등 등의 높고 낮음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본 것으로 가사

분담에 대한 태도와 만족도 간의 차이가 높을 경우와 낮을 경우에 결혼만족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t=-4.00$, $p<.001$). 성적 만족에 대한 것도 태도와 실질적인 만족에 차이가 많을 경우 결혼만족도가 낮았다($t=-5.19$, $p<.001$). 부부관계는 높을수록($t=-9.35$, $p<.001$), 가사분담갈등은 낮을수록($t=-6.72$, $p<.001$)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남편이 가사일을 평일에 해주는 양의 많고 적음은 결혼만족도에 차이가 없었다. 반면 남편이 주말에 가사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 할 때 여성들의 결혼만족도가 높았다($t=2.37$, $p<.05$). 그 외 직장관련변수는 일-가족 전이가 높을 경우 결혼만족도는 낮았고($t=-3.2$, $p<.01$) 일만족도가 높을 경우 결혼만족도는 높았다($t=3.12$, $p<.01$).

〈표 3〉 제2차 취업상태인 여성의 변인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성역할태도	가사분담만족	성적 만족	부부관계	가사분담갈등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높음	4.85(1.09)	4.72(1.09)	4.50(1.27)	5.08(1.00)	4.15(1.23)
낮음	4.87(1.25)	5.12(1.18)	5.04(1.02)	3.94(1.21)	4.99(1.07)
t-test	-0.20	-4.00***	-5.19***	9.35***	-6.72***
	남편가사(평일)	남편가사(토/일)	남편이해	일-가족전이	일만족도
높음	4.90(1.28)	5.02(1.27)	4.87(1.11)	4.71(1.11)	4.92(1.13)
낮음	4.84(1.08)	4.78(1.13)	4.64(1.46)	5.01(1.15)	4.25(1.12)
t-test	0.57	2.37*	1.23	-3.20**	3.12**

* $p<.05$; ** $p<.01$; *** $p<.001$

표4는 2차에 비취업상태인 여성으로 가사분담만족에 대한 태도와 실질적인 가사분담이 클 경우($t=-5.59$, $p<.001$), 성적 만족에 대한 태도와 실질적인 성적 만족의 차이가 클 경우($t=-10.21$, $p<.001$) 결혼만족도가 낮았다. 부부관계도 좋을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았고($t=13.98$, $p<.001$), 가사분담갈등은 낮을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았다($t=-4.58$, $p<.001$). 남편이 주말에 가사일을 많이 해 줄 경우에도 결혼만족도가 높았다($t=2.54$, $p<.05$).

〈표 4〉 제2차 비취업상태인 여성의 변인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성역할태도	가사분담만족	성적 만족	부부관계	가사분담 갈등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높음	4.92(1.20)	4.79(1.19)	4.42(1.31)	5.18(1.05)	4.54(1.31)
낮음	5.02(1.20)	5.23(1.17)	5.24(1.03)	3.82(1.21)	5.02(1.17)
<i>t-test</i>	1.13	-5.59***	-10.21***	13.98***	-4.58***
	남편가사 (평일)	남편가사 (토/일)			
높음	5.06(1.23)	5.09(1.11)			
낮음	4.92(1.19)	4.89(1.23)			
<i>t-test</i>	1.39	2.54*			

* $p<.05$, *** $p<.001$

표5의 회귀분석 전 다중공선성을 파악하기 위해 독립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 상관관계는 부부 간에 성적 만족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성적 만족 태도와 부부관계가 -.47로 가장 높고 그 외는 모두 .3이하로 회귀분석을 하는데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2차에 취업상태에 있는 여성의 결혼만족도를 보면 인구학적인 변인들을 모델1에 투입했을 때 결혼만족도 변량을 8.24% 설명하였다. 통제변인 중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주관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만족할 때였다. 1차의 취업유무에 따른 2차의 결혼만족도의 영향에는 차이가 없었다. 모델1에 본인의 성역할 태도 및 가사분담만족과 성적 만족을 투입했을 때 모델1보다 결혼만족도의 변량을 5.7% 더 설명하였다. 이중 가사분담기대와 실질적인 가사부담 만족의 차이는 결혼만족도를 유의미하게 낮추었으며($b=-0.13$, $p<.01$) 성적 만족 태도와 실질적인 성적 만족의 차이는 결혼만족도를 유의미하게 낮추었다($b=-0.33$, $p<.001$). 모델2에 부부관계변인을 투입하였을 때 결혼만족도 변량을 17.39% 더 설명하였다. 부부관계가 좋을 경우 결혼만족도를 유의미하게 높였으며($b=0.33$, $p<.001$) 가사분담갈등이 있을 경우 결혼만족도를 낮추었다($b=-0.29$, $p<.001$). 모델3에 남편의 지지변인을 투입했을 때 결혼만족도의 변량을 1.2% 더 설명하였다. 남편의 지지 중 실질적인 도움인 주말의

가사일 시간은 결혼만족도를 유의미하게 높였다($b=0.00$, $p<.001$). 모델4에 직장여성의 경우 직장관련 변인을 투입했을 때 결혼만족도 변량을 1.43% 더 설명하였다. 이중 일만족도는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나타났다($b=0.17$, $p<.01$).

〈표 5〉 제2차 취업여성의 결혼만족도

변인	<i>b</i>	β	<i>b</i>	β	<i>b</i>	β	<i>b</i>	β	<i>b</i>	β
변인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인구사회적> 직장T1	0.09	0.03	0.09	0.03	0.13	0.05	0.10	0.04	0.07	0.03
남편직장	0.43**	0.12	0.35*	0.10	0.31*	0.09	0.30*	0.09	0.30*	0.08
결혼만족T1	0.04	0.04	0.05	0.05	0.05	0.05	0.04	0.05	0.05	0.06
결혼기간	0.00	0.01	-0.00	-0.01	0.00	0.04	0.00	0.04	0.00	0.04
학력	0.00	0.00	-0.00	-0.00	0.03	0.03	0.02	0.02	0.02	0.02
주관적 건강	0.21*	0.12	0.19**	0.10	0.11	0.06	0.10	0.06	0.10	0.05
주관적 경제	0.27***	0.19	0.23***	0.16	0.10	0.07	0.09	0.06	0.06	0.04
부모님 부부관계	-0.08	-0.05	-0.09	-0.06	-0.11	-0.07	-0.09	-0.07	-0.11*	-0.08
<본인> 성역할 태도			0.04	0.04	-0.00	-0.00	0.00	0.00	0.00	0.00
가사분담만족			-0.13**	-0.13	0.04	0.04	0.04	0.04	0.05	0.05
성적만족			-0.33***	-0.18	-0.00	-0.00	0.01	0.01	0.01	0.00
<부부관계> 부부관계					0.33***	0.44	0.33***	0.44	0.32***	0.43
가사분담 갈등					-0.29***	-0.18	-0.30***	-0.19	-0.31***	-0.19
<남편지지> 남편가사일 (평일)							-0.00	-0.07	-0.00	-0.07
남편가사일 (토/일)							0.00***	0.12	0.00*	0.11
남편이해							-0.03	-0.02	-0.04	-0.03
<직장관련> 일-가족 전이									-0.04	-0.06
일만족도									0.17**	0.11
<i>F-test</i>	4.08***		5.29***		12.41***		10.57***		9.96***	
<i>R</i> 자승	0.0824		0.1394		0.3113		0.3233		0.3375	
<i>F</i> 점증테스트			7.88***		44.55***		6.32**		3.80*	

* $p<.05$, ** $p<.01$, *** $p<.001$ 단측꼬리검증

표6의 비취업상태인 여성들의 결혼만족도를 보면 모델1에서 인구학적 인 변인들은 여성의 결혼만족도를 10.04% 설명하였다. 취업상태인 여성과 마찬가지로 주관적 건강($b=0.12$, $p<.05$)과 주관적 경제는($b=0.40$, $p<.001$) 결혼만족도를 유의미하게 높였다. 모델1에 성역할 태도 및 가사분담만족과 성적 만족을 투입했을 때 모델1보다 결혼만족도의 변량을 12.84% 더 설명하였다. 이중 성적 만족태도와 실질적인 성적 만족의 차이는 결혼만족도를 유의미하게 낮추었고($b=-0.16$, $p<.001$) 가사분담 기대와 실질적인 가사분담 만족의 차이도 결혼만족도를 유의미하게 낮추었다. 모델2에 부부관계 변인을 투입하였을 때 결혼만족도 변량을 10.64% 더 설명하였다. 부부관계가 좋을 경우 결혼만족도를 유의미하게 높였으며($b=0.27$, $p<.001$) 가사분담갈등이 있을 경우 결혼만족도를 낮추었다($b=-0.14$, $p<.001$). 모델3에 남편의 지지변인을 투입했을 때 F 점증테스트는 유의미하지 않아 남편의 지지는 여성의 결혼만족도를 설명하지 못하였다.

결혼만족도의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표준화계수를 살펴보면 표 5의 취업여성 모델2의 성적 만족, 가사분담만족, 주관적 경제, 주관적 건강(=남편직장)의 순이었다. 표 6의 비취업여성의 모델2의 경우 성적 만족, 가사분담 만족, 주관적 경제, 남편직장 유무, 주관적 건강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여성일 경우 모델4에서 부부관계, 가사분담갈등, 남편가사일, 남편 직장유무 순으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 비취업상태일 경우 부부관계, 주관적 경제, 가사분담갈등, 가사분담만족, 성적만족, 남편직장유무 순으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쳐 여성의 취업유무에 따라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정도가 좀 다를 수 있다.

〈표 6〉 2차 비취업 여성의 결혼만족도

	<i>b</i>	β	<i>b</i>	β	<i>b</i>	β	<i>b</i>	β
변인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인구사회적>								
직장T1	-0.04	-0.02	-0.03	-0.01	-0.04	-0.01	-0.04	-0.01
남편 직장	0.26**	0.10	0.22**	0.09	0.17*	0.07	0.17*	0.07
결혼만족T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결혼기간	-0.00	-0.01	-0.00	-0.01	-0.00	-0.02	-0.00	-0.02
학력	-0.00	-0.00	-0.01	-0.01	-0.02	-0.02	-0.02	-0.02
주관적 건강	0.12*	0.08	0.13*	0.08	0.09*	0.06	0.09*	0.06
주관적 경제	0.40***	0.26	0.30***	0.19	0.24***	0.16	0.24***	0.16
부모님 부부관계	-0.00	-0.00	0.01	0.01	0.02	0.02	0.02	0.02
<본인>								
성역할 태도			-0.03	-0.03	-0.04	-0.04	-0.04	-0.04
가사분담만족			-0.16***	-0.17	-0.08*	-0.09	-0.08**	-0.08
성적 만족			-0.44***	-0.29	-0.13*	-0.08	-0.13*	-0.09
<부부관계>								
부부관계					0.27***	0.39	0.27***	0.39
가사분담 갈등					-0.14**	-0.09	-0.14**	-0.09
<남편지지>								
남편가사일 (평일)							0.00	0.01
남편가사일 (토/일)							0.00	0.02
남편이해							-0.02	-0.02
<i>F</i> -test	9.10***		17.29***		24.79***		20.10***	
<i>R</i> 자승	0.1004		0.2288		0.3352		0.3362	
<i>F</i> 점증테스트			35.57***		51.14***			

* $p < .05$, ** $p < .01$, *** $p < .001$ 단측꼬리검증

V. 논의 및 제언

많은 연구결과가 입증하듯이 여성의 가사분담만족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태도와 실질적인 만족의 차이가 없을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남편이 가사일을 평일에 하는 시간의 많고 적음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는 없는데 이는 평일에는 남편들도 주로 직장에 나가 여성들이 남편의 집안일을 하는 것에 대한 기대치가 낮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주말에 남편이 가사일을 많이 분담할 때 여성들의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은 주말에 여성들도 직장에 나가지 않고 가정에서 집안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남편도 역시 평일보다 시간이 많을 것으로 가사일을 분담해 줄 경우 여성들의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직장관련 변인에 따른 결혼만족도를 보면 일-가족 전이가 높을 경우 결혼만족도가 낮고 일-가족 전이가 낮을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 또 일만족도가 높을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아(이경재와 김주자, 2008) 선행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취업유무와 관계없이 가사분담이나 성적 만족에 대한 태도와 실제와의 차이가 적을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남편의 지지는 주말에 가사일을 많이 해줄 경우 여성들의 취업유무에 관계없이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직장여성의 독립변인들의 결혼만족도에의 영향을 보면 모델2에 부부관계 변인을 투입했을 때 모델2에서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던 가사분담만족과 성적 만족은 유의미하지 않게 되어 결혼만족도에서 가사분담만족이나 성적 만족보다 부부관계와 가사부담으로 인한 갈등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서적인 관계와 대화, 신뢰가 결혼만족도에 중요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만족도가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 여성들이 자신의 사회정체성을 가지며 직장에서의 한 시민으로서 기여했을 때 가정의 결혼만족도에도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여성들이 직장에서 즐겁게 가사부담이나 자녀양육 등으로 걱정하지 않도록 미시체계인 가정에서 남편의 도움, 중간체계에서는 양성평등적인 기업문화, 또한 자녀양육 등도 걱정하지 않도록 사회에서 여성들이 즐겁게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취업유무와 관계없이 부부관계는 결혼만족도를 높였고 가사분담으로 인한 갈등은 결혼만족도를 낮추었다. 직장이 없는 여성의 경우 직장이 있는 여성과는 달리 남편의 지지는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남편이 주말에 가사일을 해주는 것도 결혼만족도에 아무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취업여성일 경우 모델3에서 가사분담만족이나 성적 만족이 부부관계 변인과 가사분담갈등이 들어갈 때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것과는 달리 비취업 여성은 가사분담만족이나 성적 만족도도 결혼만족도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취업 여성의 경우 일과 직장의 양립으로 부부가 사랑을 나눌 시간이나 신체적으로 피곤하여 성적인 만족을 통한 결혼만족도 보다는 자신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얻을 수 있는 대화 등을 통한 부부관계가 결혼만족도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취업여성의 경우 주관적 경제는 모델3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지만 비취업 여성의 경우는 유의미하게 나와 외벌이 가정의 경우 맞벌이부부 가정보다는 경제적인 만족이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침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취업한 여성에게서만 가능한 일만족도를 투입한 표5의 모델5에서 일만족도는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일과 가정의 만족도는 분리되지 않으므로 현대 여성들의 직업을 통한 자신들의 정체성 확립을 알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일만족이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도 지지한다(조혜선, 2003). 전체적으로 취업한 여성의 경우 직장관련 변인을 포함하여 결혼만족도의 변량을 33.75% 설명하고, 직장이 없는 여성의 경우 부부관계, 사회적 지지 등을 포함하여 모든 변인이 결혼만족도를 33.62% 설명하고 있어 취업한 여성의 경우 직장관련 변인이 포함되었을 경우에 비취업 여성의 결혼만족도를 설명하는 변량과 비슷하여 결혼만족도를 설명하는데 직장관련 변인의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횡단적 연구를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종단적 연구로 제2차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1차의 결혼만족도와 원가족의 부모님의 부부관계를 통제변인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취업한 여성의 경우 성적인 만족도는 부부관계와 가사부담으로 인한 갈등요소가 투입되었을 때 더 이상 결혼만족도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 이는 결혼에서 성적인 만족도 중요하지만 그 외의 부부 간의 관계의 질이 성적 만족도 보다 더 중요함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결혼만족도는 가정의 안정과 평화 위에 가능하며 가정의 평화는 여성들이 직장에서 사회인으로서의 역할 수행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가사분담 갈등 변인이 투입되었을 때 가사분담만족은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아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큼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취업한 여성들은 특히 가정에서의 일-가족 양립으로 인해 생기는 가사부담으로 인한 갈등이 해결되어야 가족구성원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다. 즉 남편의 가사일 분담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양성평등적 입장에서 특히 여성이 직장으로 인해 시간의 제약이 뚜렷할 때 같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공유하는 것은 여성의 복지와 결혼만족도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가족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생산적 기능인데(Longress, 1990) 직장인에게 가정에서의 중요한 생산적 기능은 사회활동을 위한 재충전일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가사부담으로 인해 가정을 통하여 생산적 기능을 재충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들의 사회적 기능의 확대를 위해서도 가족 내에서 배우자를 통한 가사분담으로 인한 갈등이 해결되고 가사분담 및 가사분담에 대한 만족을 통해 정서적 기능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은 곧 결혼 만족도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또한 직장 내에서도 일과 가족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의 활성화도 필요하다(이진숙과 최원식, 2011).

본 연구의 한계는 사용된 변인의 척도가 대부분 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어 타당도가 높지 못한 것이다. 실례로 수직적인 영향은 가족의 가풍이나 가족 간의 관계의 유형이나 기능 및 가족구성원의 태도나 가족구성원에게 기대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데(Carter and McGoldrick, 2005) 본 연구에서는 수직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척도로 부모의 부부사이 만을 사용하여 수직적인 영향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아 한 문장으로 된 척도로 신뢰도 및 부모님의 좀 더 구체적인 부부관계가 아닌 단순한 부부사이의 측정으로 타당도가 약한 한계가 있다. 여성들의 취업유무에 따라 도움 받는 시간의 차이를 파악했듯이 남성들의 가사일 시간

도 남성의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으로 좀 더 구체적인 남성의 시간 차이로 인한 여성들의 결혼만족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척도의 한계는 2차 자료를 활용한 연구들의 공통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패널자료라는 장점을 살려 종단적 연구를 할 수 있었으며 취업상태의 변화에 따른 여성의 결혼만족도를 살펴봄으로써 직장과의 상호영향관계의 원인파악이 가능하였고 전국규모의 대표성 있는 자료의 활용으로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가능하다.

참고문헌

- 강혜숙·김영희(2008). 결혼초기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 관련된 요인. 한국가족치료학회, 제16권 제10호, pp.135-156.
- 김갑숙·최외선(1992). 아내가 인지한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0권 제2호, pp.133-143.
- 김경숙(1987). 기혼취업여성의 직업만족도와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신·김오남(1996). 맞벌이 부부의 가정-직장 균형과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 인적자원 관리학회지, 제14권 제2호, pp.1-18.
- 김미령(2009). 연령대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및 영향요인 비교. 한국가족복지학, 26호, pp.35-62.
- 김민희·민경환(2007). 중년기부부의 애착과 결혼만족: 애착유형과 결혼만족의 매개요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제27권 제1호, pp.213-233.
- 김병수·정혜정(2007). 원가족 경험 및 결혼만족도와 혼외관계 경험.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2권 제3호, pp.177-205.
- 류계숙·강수향·오아림·이현주(2011). 맞벌이부부의 가사분담이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제15권 제1호, pp.117-136.
- 박경환(2010). 기본직장인의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가정생활만족도와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 경영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 박태영(1998).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5호, 27-50.
- 손연정·유문숙(2008). 기혼 직장여성의 결혼만족과 관련요인. 한국모자보건학회지, 제12권 제2호, pp.143-154.
- 오종희(2008). 성의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1세기 사회복지연구, 제5권 제1호, pp.137-158.
- 윤대혁(2008). 맞벌이 부부의 가정-직장 균형과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 인적자원 관리학회, 제15권, 제1호, pp.87-109.
- 이경재·김주자(2008). 여성사무직 근로자 등의 결혼상태와 직무만족도.

- 한국의학회지, 제30권 제2호, pp.198-205.
- 이선미·전귀연(2001). 결혼초기 남편과 아내의 부부갈등과 대처방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 제19권 제5호, pp.203-220.
- 이진숙·최원석(2011). 기혼 직장여성의 일-가족양립갈등 경로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제50권 제1호, 169-198.
- 이희숙·박경(2008). 성인애착과 결혼만족 간의 관계: 보살핌과 성적 친밀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13권 제3호 pp.671-689.
- 조혜선(2003). 결혼만족도의 결정요인: 경제적 자원, 성 역할관, 관계성 모델의 비교. 한국사회학, 제37지 제1호, pp.91-115.
- 조흥식 외(2006). 가족복지론. 서울: 학지사.
- Anderson, S. A., and Savatelli, R. M. (2003). *Family Interaction: A Multigenerational development perspective*. Boston, Mass.: Pearson Education Co.
- Bradbury, T. N., Fincham, F. D., & Beach, S. R. (2000). Research on the nature and determinants of marital satisfaction: A decade in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4), 964-980.
-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 Burr, W. R., Leight, G., Day, R., and Constantine, J. (1979). Symbolic interaction and the family, In W. R. Burr, R. Hill, F. I. Nye, & I. Reiss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pp.42-111). Vol.2, New York: The Free Press.
- Carter, B., and McGoldrick, M. (2005). The expanded family life cycle: *Individual, family and social perspectives*. 3rd ed. Boston, Mass.: Pearson Education Co.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Frisco, M. L., & Williams, K. (2010). Perceived housework equity

- marital happiness, and divorce in dual-earner households. *Journal of Family Issues*, 24, 51-73.
- Greenstein, T. N. (1996). Gender ideology and perceptions of the fairness of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Effects on marital quality. *Social Forces*, 74(3), 1029-1042.
- Kail, R. V., and Cavanaugh, J. C. (2007). *Human development*. Belmont, CA: Wadsworth.
- Kessler, R. C., & McRae, J. A. (1982). The effect of wives' employment on the mental health of married men and wom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 216-27.
- Kim, J. E., and Moen, P.(2001). Moving into retirement: Preparation and transitions in late midlife in Margie E. Lachman(Ed.), *Handbook of midlife development*(pp.487-527).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Lavee, Y., & Katz, R. (2002). Division of labor, perceived fairness, and marital quality: The effect of gender ideolog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1), 27-39.
- Longress, J. F. (1990).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 Itasca, IL: F. E. Peacock Publishers, Inc.
- Olson, David H., McCubbin, H. I., Barnes, H. L., Larsen, A. S., Muxen, M. J., and Wilson, M. A. (eds.). (1989). *Families: What makes them work*. News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Pavalko, R. M. (1986). *Social problems*. Itasca, IL: F. E. Peacock Publishers, Inc.
- Pearlin, L. I., Lieberman, M. A., Menaghan, E. G., & Mullan, J. T. (1981). The stress proc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 337-356.
- Ross, C. E., & Mirowsky, J. (1988). Child care and emotional adjustment to wives' employmen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9(June), 127-138.

- Vannoy-Hiller, D., and Philliber, W. W. (1989). *Equal partners: Successful women in marriage*. News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Vannoy-Hiller, D., & Philliber, W. W. (1992). Wife's employment and quality of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2), 387-398.

Abstract

The Comparison of the Difference and the Effect of Marital Satisfaction of Women by Employment

Kim Mee-ryoung*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affecting the marital satisfaction of household tasks, the relationship between spouse, spouse's understanding of women's employment and help, and women's gender identity. This study used the first and second wave of women's panel data of Korean Women's Department Institute. The sample is consisted of four groups(employed1-employed2; employed1-unemployed2; unemployed1-employed2; unemployed2-employed2) and the size is 2084. The factors affecting marital satisfaction were compared.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if there was a satisfaction of the housework sharing with the spouse, the marital satisfaction was high. There was no difference of marital satisfaction depending on the husbands' weekday work hours but a difference with weekend work hours. In regards to job-satisfaction, if job-family transfer was low, the marital satisfaction was high. When spouses shared the housework, the marital satisfaction was high. But the conflict due to house chores reduced the marital satisfaction. The couple's relationship affected marital satisfaction regardless of the employment status. Also regardless of the current employment status, if the relationship within a couple was good, the marital satisfaction was high. The husband's support did not affect the one who did not have a job.

Key words: employment status, gender role orientation, division of household labor, marital satisfaction

* Professor, Department of Community Development and Welfare, Daegu University

